

2022년 8월 #작은도서관 #무슨책읽어?

경기북부지부

소속 / 이름		책제목 / 저자 / 출판사	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
1	강촌공원작은도서관/조혜영	김상욱의 양자 공부/김상욱/사이언스북스	양자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.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. 하지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친절한 책입니다.
2	햇빛21작은도서관/윤영연	내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/김대식/문학동네	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계가 절대 아니다. 뇌가 아는 것을 본 것이 세상이다.
3	온가족비전도서관/길지애	세상을 바꾼 여성 과학자 50/레이첼 이그노트프스키/길벗 어린이	어느 시대든, 어느 곳이든 멋진 여성들이 있었다!
4	모당공원작은도서관/김정희	슈퍼맨과 중력/김성화, 권수진 글/최미란 그림/토토북	우리 행성은 중력이 무시무시해 뭐든지 무시무시하게 끌어당겨 그래서 우리는 납작해 뭐든지 납작하고 딱딱해

2022년 8월 #작은도서관 #무슨책읽어?

광주지부

도서관명 / 이름

책제목 / 저자 / 출판사

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

1	책돌이도서관/신화숙	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/이현 글/최경식 그림/만만한책방	<p>문학류에 속하지만 과학적인 지식을 알기에도 손색없는 책이다. 이현 작가의 이야기 솜씨야 익히 아는 바이지만, 그림책이라는 매체에서도 이야기의 힘은 여전하다</p> <p>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위험도 없지만 발견도 없다</p> <p>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 조금씩, 천천히,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</p> <p>우주과학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아는 것이 없더라도,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재미있게 읽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</p>
2	아이숲어린이도서관/김영아	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/벵하민 하바투트, 노승영 옮김/문학동네	<p>과학 분야에 획을 그은 프리츠 하버, 슈뢰딩거, 하이젠베르크, 슈바르츠실트, 그로텐디크, 모치즈킨이치 같은 20세기 화학자, 물리학자,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곁들여 쓴 픽션같은 논픽션. 그들의 지적 갈망의 산물들이 처음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간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보는 그들의 환희, 광기, 위기를 엿볼 수 있다.</p>
3	책문화공간 봄/김순정	클라라와 태양/가즈오 이시구로/민음사	<p>AI와 로봇, 인간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라면~ 그것들이 인간의 어디까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? 우리에게 남은 인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?</p> <p>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만 속한 걸까 아님 너로 인해 증명되는 걸까?</p> <p>과학책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지만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하는 문제를 담고 있는듯해서 추천해 봅니다.</p>

2022년 8월 #작은도서관 #무슨책읽어?

사무국

소속 / 이름		책제목 / 저자 / 출판사	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
1	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/김수민	얼마나 닳았는가/김보영/아작	앞이 멈추면 시간도 멎는다. 앞이 멈춘 사람의 시간은 멎으며 그 사람은 더 자라지 않는다. 그래서,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,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이다.
2	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/이은주	랩걸/호프 자런/알마	과학계를 이루는 작지만 살아있는 부품으로서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수없는 밤들을 지새웠다...오랜 세월을 탐색하며 빚어진 소중한 비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나도 누구에게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염원을 품고 있었다.

2022년 8월 #작은도서관 #무슨책읽어?

충청지부

소속 / 이름

책제목 / 저자 / 출판사

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

1	해바라기도서관/박면우	스킹의 발명 노트/샤샤미우	<p>소나사막에서 제일 높은 사구야로 타워꼭대기 층에 있는 스킵 하루종일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 궁리를 한다. 스킵의 발명노트엔 구름모자, 방귀의자, 벼락연필 등 기상 천외한 발명품이 가득한데... 스킵이라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.</p> <p>실패를 하게 되는 날이면 스킵도 속상해하고 우울하다. 또한 주눅도 들지만 실패덕에 또 다른 발명품을 생각해 낸다.</p> <p>재미있는 발명품을 보는 재미도 있고 실패란 감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림책이다.</p>
2	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/오유미	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/곽재식/동아시아	<p>8월 5일 오전 8시 8분 누리나라의 첫 발음사전 '다누리'가 울릉도에 발사되었습니다. '다누리'가 12월 말, 달의 극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도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의 달 탐사국이 됩니다. 누리호의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당연히 우주시대에 함께하게 된 우리는 '다누리'를 통해 달의 지형과 구성성분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 2032년을 목표로 하는 달 착륙선의 착륙지점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. '다누리'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다양한 측정 장비들과 함께 미항공우주국(NASA)의 새도우캠이 함께 실려있습니다. 이 새도우캠은 달의 수분을 측정하기 위함이며 이 결과를 통해 2024년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는 "아르테미스 프로젝트"의 첫 도착 지점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. 이렇게 우주 과학 기술 및 산업에 많은 관심을 쏟는 이 시기에 딱 맞는 책이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, 어려운 과학이야기를 인문학 적으로 잘 풀어내는 곽재식 작가의 책이기에 읽기 전 미리 추천을 해봅니다. 달이 있기에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 할 수 있었으며, 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23.5도로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도 달 덕분입니다. <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>는 달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을 풀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. 이 책과 함께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'Moon을 열다' 기획전도 함께 추천해 봅니다.</p>
3	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/김은정	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/정윤선/다락원출판사	<p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풀어 줄까? 아니면 끝까지? 그 해답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한다.</p> <p>'준비된 변화는 기회가 된다' 라는 말이 있다. 코로나19가 곧 사라질지 독감처럼 약해져서 사람들 곁에 머물지 누구도 이 끝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세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거다. 그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같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사용했다.</p> <p>전염병을 막는 방역, 마주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언택트 문화,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 그린뉴딜, 새로운 시대를 연 디지털 문명, 방역을 도와주는 로봇 삼총사 테미 따르고 유버에 관한 이야기, 로봇이 충전해 주는 전기차, 원격진료가 가능한 세상 등 129가지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 책!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알아볼 수 있는 책!</p> <p>그대의 변이 되어 줄게...^^</p>
4	범지기9단지 달빛도서관/이주희	난민, 난민화되는 삶/김기남 외/갈무리	<p>한국사회의 난민 현실, 난민과 난민화되는 삶의 간극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차이와 우리의 현실을 알수있는,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책</p>
5	성성푸른도서관/박민주	빅 히스토리/빅 히스토리 연구소/사이언스북스	<p>중학교 시절 "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내가 있기 전 단 어디에 있었고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딘지" 너무나 궁금했다. 빅히스토리라는 책을 그때 만났더라면 조금은 명쾌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.</p> <p>과학과 종교와 철학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인간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지식정보를 담고 있다.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해매는 청소년들에게 권해주고 싶다.</p>